

# 지속적 기술 개발 통한 효율적 폐기물 중간처리 호평

## 올해부터 RPF본격 양산



오 청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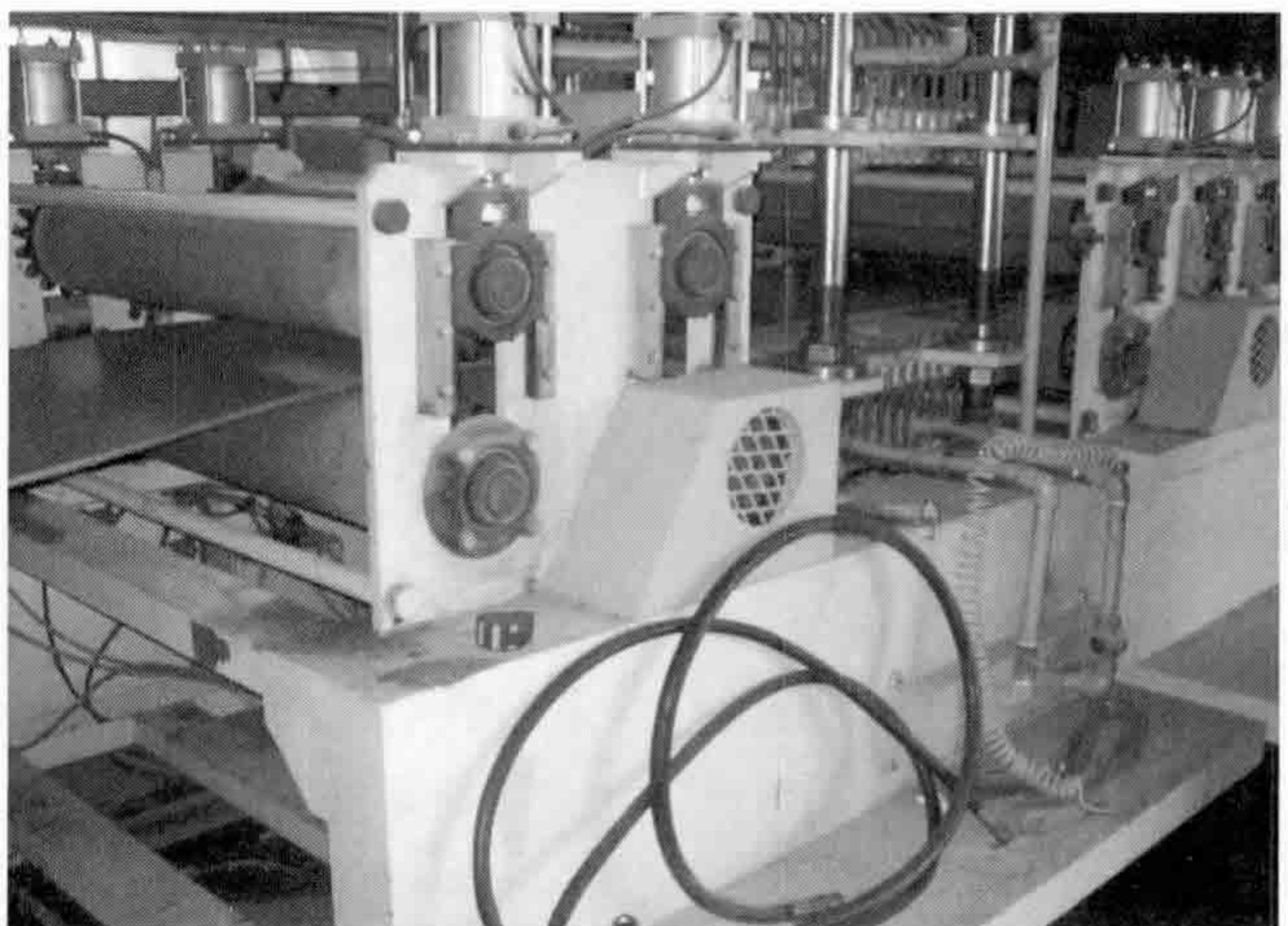
정우리사이클링(주) 대표이사

“친환경”이라는 테마는 단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테마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해 신개척 사업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 따라서 환경관련 사업의 경우, 오늘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재, 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우리사이클링(주)(대표이사 오청호)을 찾았다.

1998년 3월 설립된 정우리사이클링(주)은 2001년 한일시멘트(주), 2005년 라파즈한라(주), 2006년 쌍용양회(주)와 보조연료 공급계약을 체결, 대체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 거꾸집 메인 생산 라인

현재 국가적인 과제인 폐기물을 대체 에너지로 생산하거나 재생 파렛트를 생산하여 원료로 납품,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정우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주)와 인연이 되어 2009년도 12월까지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며 그외 SK, 롯데,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등 업계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다.

2005년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2년간 많은 시행착오와 주위의 조언으로 복합재생원료(PE+PP+OPP+NY)를 지난해부터 본격생산한 정우리사이클링은 이 원료를 사

용한 첫제품인 자동차 주차블럭 생산을 시작, 2007년 3월에 양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복합원료 생산량의 80%는 재생수지업체, 화분공장, 주차블럭공장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설자재용 거푸집(콘판넬)을 시험가동 중이다.

정우 관계자는 “월 180톤의 복합원료를 생산해 현재는 저가의 재생원료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 꾸준한 노력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품질의 재생원료와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배출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우리사이클링의 합판라인은 당사원료를 사용하여

2008년 건설시장을 겨냥하여 현재 시제품을 생산 중이며 이는 공사장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목재합판 대용으로 약 40회에서 60회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품이다. 특히 폐자재로 나오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어 여러 회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우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도태되지 않는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R&D 등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처리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적기 적법처리와 재활용 수익을 극대화해 배출업소에 처리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등 오래도록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우리사이클링(주)은 설립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는 단순 선별, 파쇄, 분쇄하여 시멘트 3개사로 공급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시험가동을 끝마친 올해부터는 대체에너지(RPF)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단순히 시멘트사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보조연료가 아닌 고품질의 신재생에너지



▲ 1차 파쇄기 사진

# JEONGWOO

로서 고유가로 인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제철소, 화력 발전소, 스팀보일러(버너사용) 설비 등의 분야에 이를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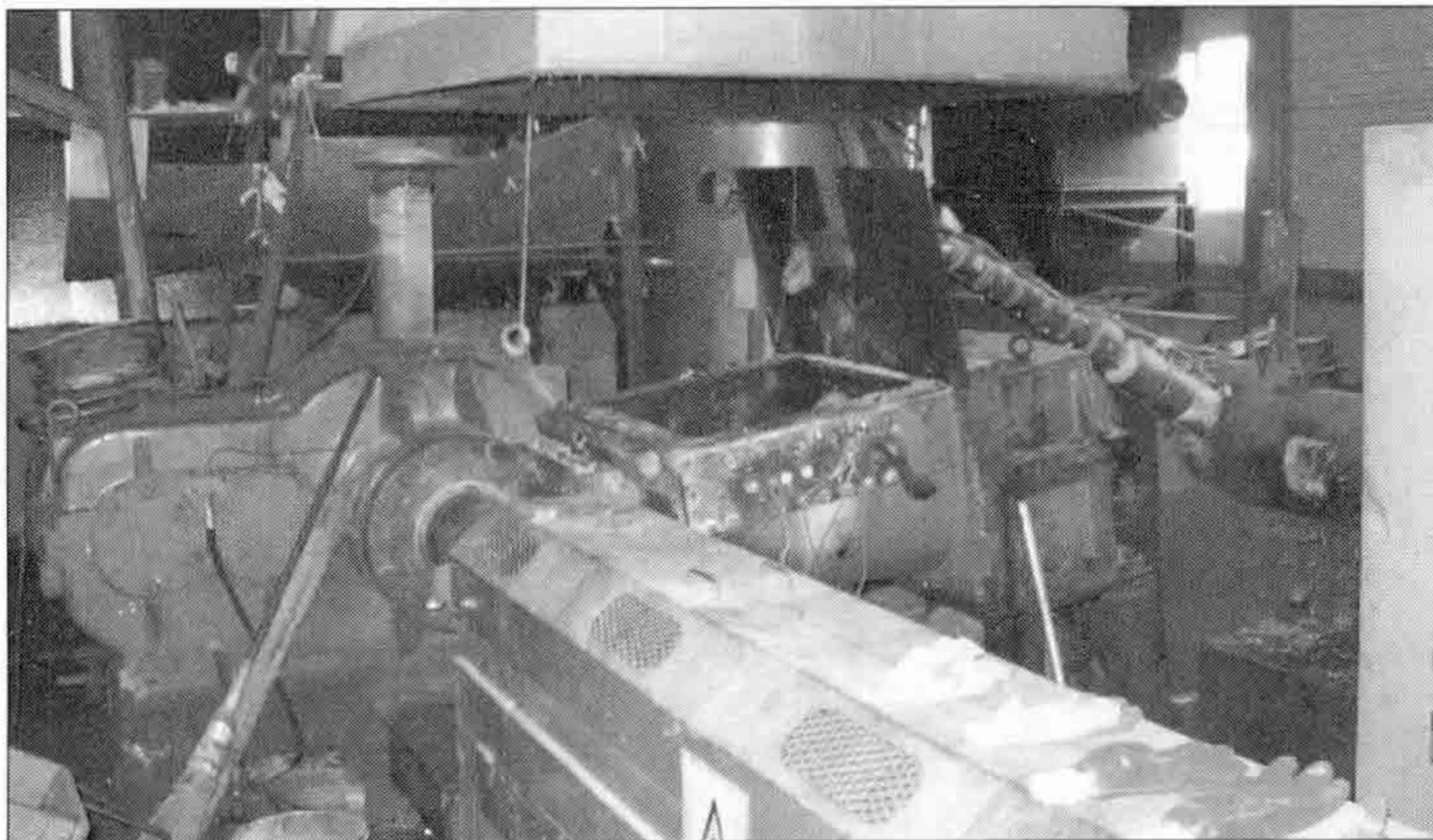
품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을 수년 동안 해 온 노하우를 이용, 침체된 시장에서도 원가절감을 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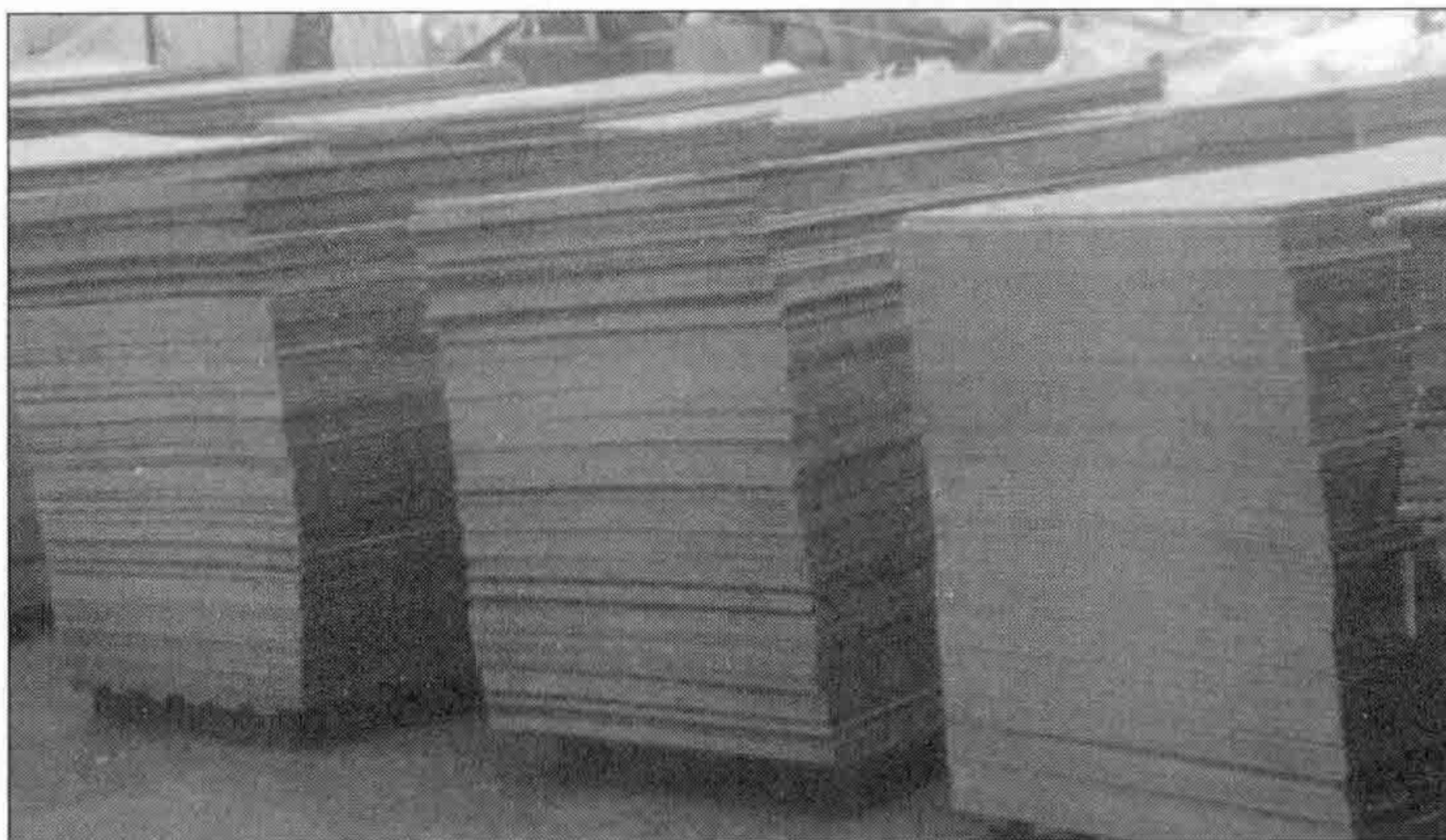
여 안정적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정우리사이클링(주). 정우는 2005년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장의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사전에 예상, 재활용 사업에 신규투자를 해 주차블럭, 원료, 건축용합판 등의 생산을 시작했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멘트 회사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연료를 RPF로 재가공하여 다양한 판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우 관계자는 “다년간의 폐기물처리업 노하우로 시장의 변동에 적절한 대처를 하여 국가의 환경보호 및 배출업체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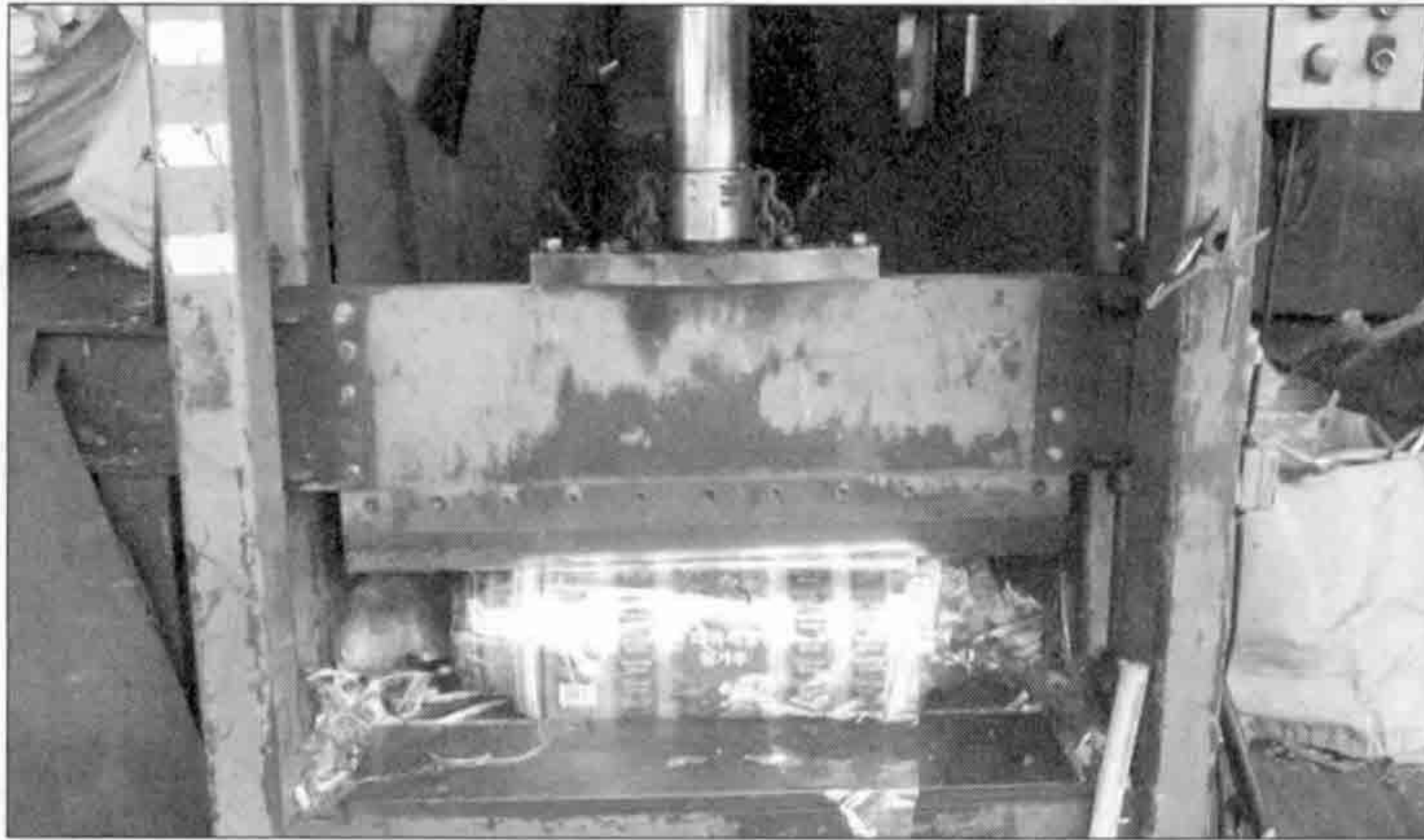
사실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환경단체가 근거 없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가 심해지고 있



▲ 원료생산 라인



▲ 거푸집 합판 사진



▲ 롤 절단기

는 상황이다.

“현재 시장은 고유가로 인하여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특성상 수집 및 운반 그리고 최종 처리장으로 재활용제품의 운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폐기물에 대한 수집조건과 성상에 대한 제한 및 자체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우리사이클링 관계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애로사항을 밝히면서 “폐기물 중간처리 재활용 시장에 최근 들어 유럽지역의 외국기업들이 엄청난 자본과 대규모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출을 모색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내 폐기물처리업계의 경우 새로운 기술과 처리방법, 다양한 연관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배출업소에 지속적인 가격인하 및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켜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21세기 지구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자원 절약 및 재사용으로 지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고 있는 정우리사이클링(주)은 금번, 폐기물을 배출하는 회사가 저비용 그리고 적법한 처리를 통하여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바

람을 갖고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정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미력하게나마 포장업계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가입 소감을 밝힌 정우리사이클링(주)은 “기존에 폐기물 처리시 배출업체에서 작성하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 등 제반 서류의 전산화를 위한 적법처리시스템이 오는 2008년 7월 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것과 관련해 포장협회 회원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우리사이클링(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물질재활용 방향으로 노력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에 있어 선진기술을 보유한 독일, 일본 등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를 통한 선진기술의 습득으로 배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폐기물의 적법처리와 처리비용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포장업계에 정우리사이클링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

박초혜 기자